

CASES

조정중재사례 소개

| 명예훼손 사례 | 모 대학병원이 환자보다 비용절감에 신경쓰고 있다는 보도, 반론보도 게재로 조정성립

A신문사는 B대학교 병원이 재정적자 타개를 위해 비상경영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하면서, MRI나 CT 촬영 등 각종 검사실적을 지난해 보다 5% 늘리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도관이나 고무장갑 등 진료용 물품을 저렴한 것으로 구입하는 등 환자보다 비용절감에 신경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B대학교 병원은 직원들에게 검사실적을 늘리거나 진료용 물품을 저렴한 것으로 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교체되었다고 보도된 물품은 종전부터 사용부서에서 용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결함 없는 제품이라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이에 피신청인측은 취재 당시 해당 대학병원측에서 작성한 문건을 제출하며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중재부는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신청인의 반론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 반론보도를 하도록 조정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졌다.

| 초상권 침해사례 | 검찰 소환을 받고 나온 언론사 회장의 수행기사를 동의없이 촬영·보도, 해당 언론사 기사 삭제 후 각 50만원씩 배상

C, D뉴스통신사와 E, F인터넷신문은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운전 중 있는 신청인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의 얼굴이 언론에 보도되어도 좋다고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 이후 소속과 업무 보직이 노출되어 사회 생활이 많이 불편해졌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신청인 언론사들은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각각 5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했고 해당 기사는 삭제해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취하였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김석준 _ 소설가이자 교수님이신 이문열씨의 인터뷰 내용을 다룬 “소설은 존재를 스스로 표현하는 양식”이라는 기사를 참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어렸을 적 재미있게 보았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이란 작품을 만드신 분이란 걸 새로이 알았고 무엇보다도 소설가로서 순탄치만은 않은 과정을 겪으셨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고 안타까웠습니다. 인터뷰에서 한 말이 앞뒤가 잘리거나 한 마디만 부각시켜서 보도되어 오해도 많이 받으시고 심지어 ‘친일파’로 낙인 찍히기도 하셨다는데요, 언론의 지나친 과장보도와 검증되지 않은 보도로 당사자를 난처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라고 외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언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까지가 언론의 자유이고 어디까지가 악용인지 한번쯤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 린 _ 저는 수원 천천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또래조정에 관한 글을 읽고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고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하루빨리 또래조정 같은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어 학생들이 대화와 설득에 익숙해져 사회에 나아가서도 갈등을 잘 풀어나갈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또래 학생이 조정자가 돼 대화로 해결하도록 돕는 ‘또래중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또래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하니 우리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좋은 모습으로 달라질 지를 기대해 봅니다.

김혜지 _ 어머니!

다이어트 기사가 다른 곳에서 본 것과 많이 달라 놀랐습니다. 나이 따라 다르게 하는 법은 처음으로 봤거든요. 제 나이 이제 30대 중반인데 다이어트는 무조건 젊은이들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무리하다 고생한 적이 있어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30~40대는 신체 성장이 끝나고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에너지 소모량과 섭취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라니, 전혀 몰랐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을 몰랐으니 실패할 수 밖에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격과 실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체 건강이 원하는 만큼만 음식을 공급해야 한다니 꼭 명심하겠습니다. 금방 50, 60대가 될텐데 연령대별 다이어트로 건강 지키겠습니다.